Ch 카톡에서 대한성서공회 채널 추가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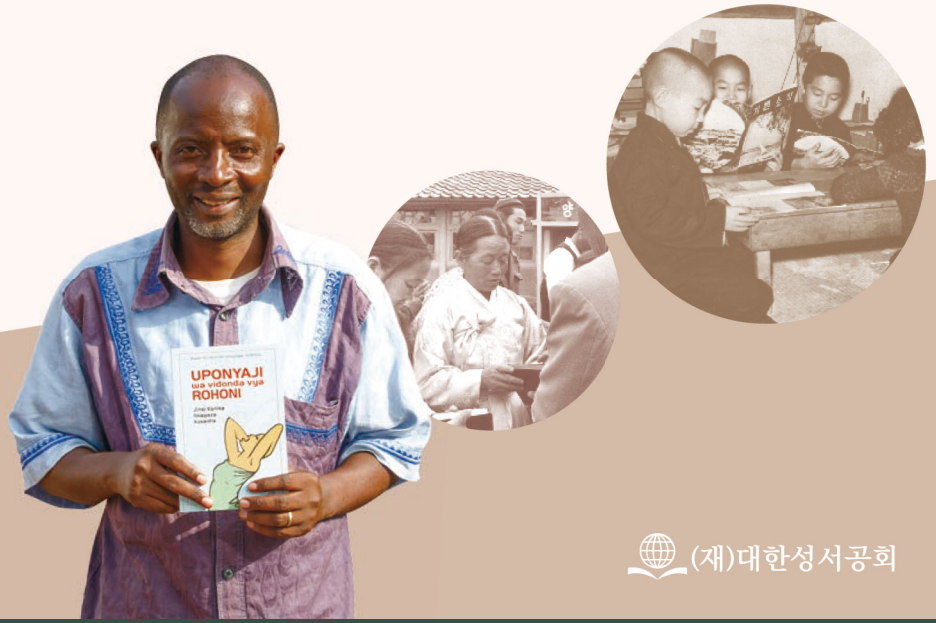
12월 11일(둘째 주일)은 성서주일입니다!

# 세상을 밝히는 말씀의 빛

한글 성경은 서구교회의 도움으로 번역·보급 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을 통해 우리 선조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 전통 사회의 구습을 타파·개혁하는 데 앞장서며
어두운 사회를 밝게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성서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하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주일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두움에 사로 잡혀 사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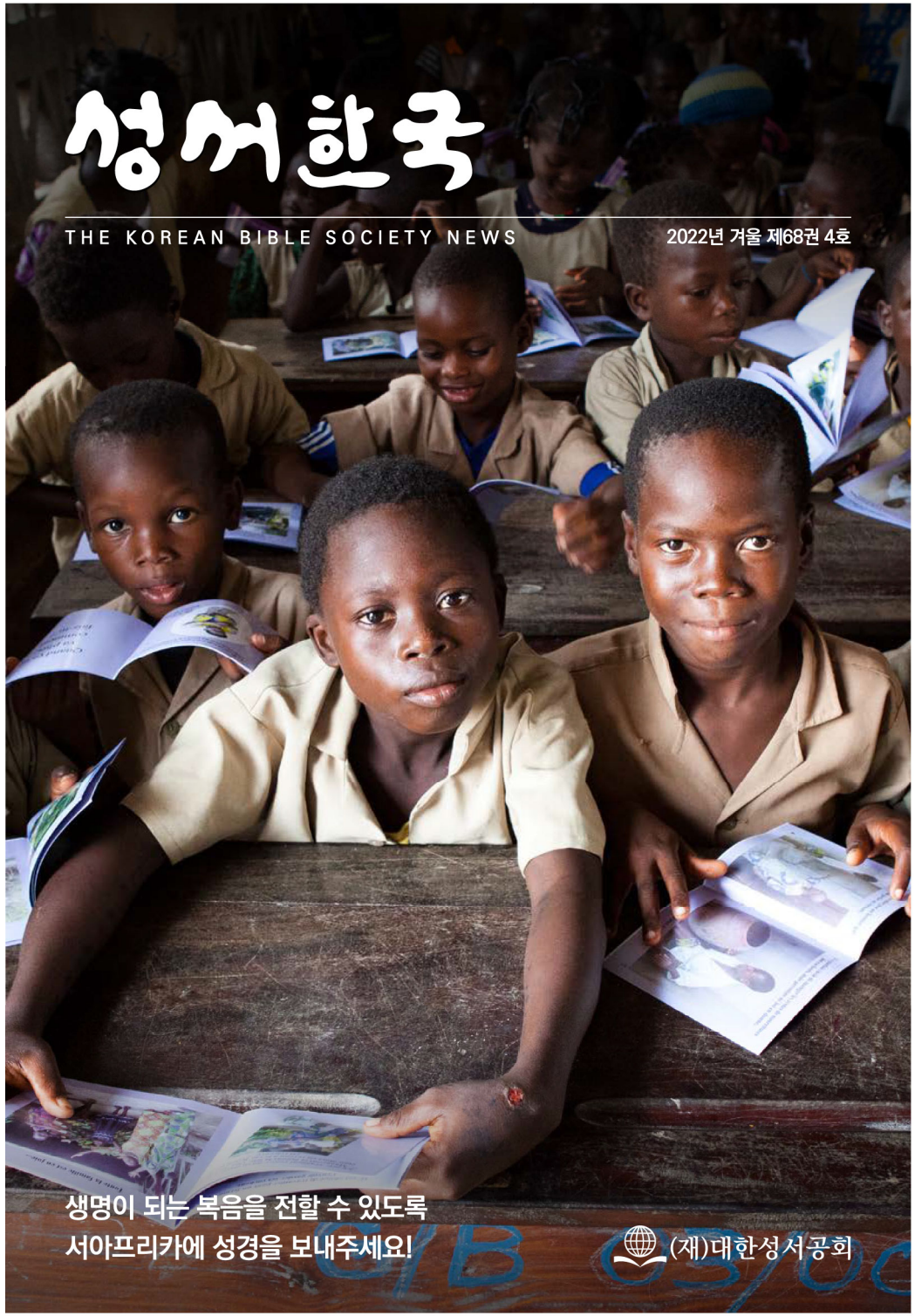



(재)대한성서공회

후원 문의 080-374-3061(수신자부담) 팩스 : 02-2103-8896 / www.bskorea.or.kr
후원 계좌 수협은행 033-01-085327 ▸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재)대한성서공회)

#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2022년 겨울 제68권 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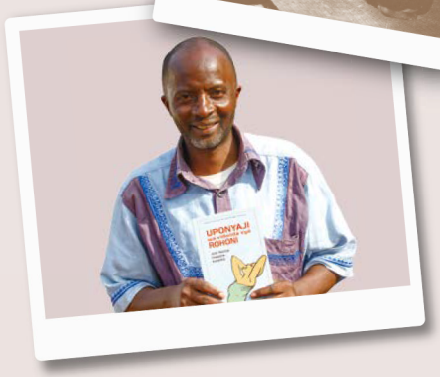
생명이 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서아프리카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재)대한성서공회

# 대한성서공회
#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 세상을 밝히는 말씀의 빛

한글 성경을 통해 우리 선조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 전통 사회의 구습을
타파·개혁하는 데 앞장서며
어두운 사회를 밝게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두움에 사로 잡혀 사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헌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 해외 성경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성서공회들을 돕는 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에이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합니다.

### 국내 성경 지원

국내 미자립교회, 군 장병, 북한이탈주민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보급합니다.

한국교회와 후원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헌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와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 **www.bskorea.or.kr**

# 성서한국

2022 겨울 제68권 4호


02 포토에세이
최고의 선물, 성경

04 2022 성서사업 보고

06 커버스토리
생명의 복음을 서아프리카에!

10 2022 해외 성서 기증 현황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48개 나라에
840,925부의 성경을 보냈습니다!

12 성경을 받은 사람들
수리남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를!

15 이란을 위한 기도
이란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6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새터민 대학생들도 말씀을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에 감사하며 –

18 우크라이나 성서 후원 중간보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전해진 성서

20 후원 이야기

23 대한성서공회 소식
1. 『성서 속의 사람들』을 발간하다
2. 2022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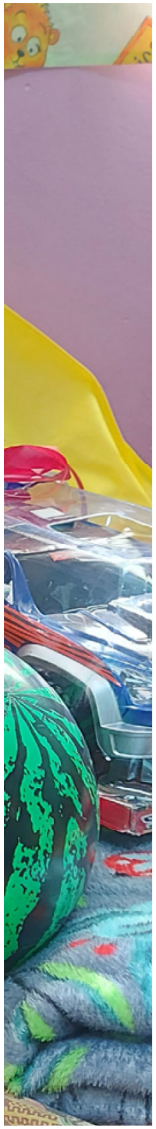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의헌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성서사업센터** (1708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97
**재단사무국**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부담)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22년 12월 30일
· 인쇄인·인쇄처·편집 : (주)타라티피에스
*https://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지는 도서잡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 어린이 성경을 받은 엘리아스(Elias)



# 최고의 선물, 성경

니카라과성서공회는 니카라과 라마스코타 어린이 암 병동에
입원한 어린이와 그들의 부모님, 그리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성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아픔을 이겨낼 힘을 얻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아스도 어린 나이에 암을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암 병동에서 어렵게 치료받는 중에
어린이 성경을 선물 받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전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성경을 읽는 동안**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하신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제한되었던 성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의현 사장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성서사업에서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공회에서는 금년 9월에 아프리카의 베냉, 코트디부아르, 가나 3개국을 방문하였으며, 10월에는 중남미의 브라질과 멕시코 2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모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중단되거나 제한되었던 성서 보급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각 성서공회들이 필요한 만큼의 성경을 충분히 주문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여서 한국교회의 후원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특별히 니제르 교회가 성경이 부족하다는 안타까운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체 인구 2천 6백여만 명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인 니제르에서 기독교 선교활동을 하는 것에는 상당한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어 성경을 보급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십자가를 건네주면서 저희의 손을 꼭 붙잡고 니제르를 위해서 성경을 지원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국내 성서 보급 사업

금년에는 본 공회에서 보급한 성경과 국내 성경 출판사들이 본 공회로부터 개역개정판 성경 본문 사용에 대한 저작권 허락을 받아 출판한 주석 성경을 합하여 총 830,105부를 보급하였습니다. 지난해 말에 출간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또 더 쉽게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독자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새한글성경』의 구약까지 완역되어 출간되기를 독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여러 교회들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성경으로 이 성경을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은 최신 성서학 연구 결과를 담은 해설이 풍부하여 독자들에게 성경 이해와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의 헌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해외 성서 보급 사업

금년에는 87개 나라에 129개 언어로 3,919,630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1973년 해외 성서 보급을 시작한 이래 총 1억 9천 9십여만 부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최근에 성서 용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매 성서공회들의 성경 제작 주문이 증가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의 재료 및 제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해외 성서 기증 사업 및 이를 위한 모금 사업

본 공회에서는 세계 성서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지원금과는 별도로, 성경 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8개 회원 성서공회에 840,925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기증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는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한 381,600부의 우크라이나어 성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교회와 후원회원들께서 국내외 성서 사업 지원을 위해서 총 59억 4천여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1억 9천여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국내외에 성경을 보내는 운동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해 주시는 교회와 후원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성경번역연구소 설립

성경번역연구소는, 2022년 5월 24일 실행위원회 결의로, 그동안 본 공회가 운영해 온 번역실, 성경원문연구소, 성서학도서관을 통합·개편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성경번역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국내외 학자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성경의 번역과 개정 사역의 중심축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학제 간의 교류로 성경 원문과 번역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한국교회의 여러 의견들을 집대성하여 그에 대한 연구를 축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대한성서공회 제138회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 한눈으로 보는 2022 성서사업 보고





# 생명의 복음을 서아프리카에!

아프리카 대륙, 사하라 사막 북쪽과 기니만 남쪽 사이의 **아프리카 서부 지역**은 서구 식민지배 시대에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고, 그 영향으로 현재까지도 불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해당하는 약 20여 개의 나라들은 대부분 낮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30개 나라 중 11개 나라가 서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 안에서도 정치적 위기와 불안한 치안을 갖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아프리카 지역의 나라들은 만연한 부정부패, 부족 간 갈등, 낮은 교육 수준 등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 앞에 놓인 여러 어려움으로 좌절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맞닿은 성경 보급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아프리카 불어권 성서공회들

| | |
|---|---|
| 베냉 | 가봉 |
| 부르키나파소 | 기니 |
| 부룬디 | 말리 |
| 카메룬 | 니제르 |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토고 |
| 차드 | 세네갈 |
| 콩고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 |
| 코트디부아르 | |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를 기반으로 글을 배우고, 내전의 트라우마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위로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 글을 배워 말씀을 읽습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 베냉의 성인 문맹률은 57.6%에 달합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원하는 직업을 갖기도 어렵고, 누군가 성경을 읽어주지 않으면 말씀을 접할 수도 없습니다. 성서공회가 운영하는 성경 기반 문자교실은 이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신앙이 없던 사람들도 글을 배우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기 위해 노력합니다. 교회에 다녔지만 글을 몰랐던 사람들은 글을 깨우치면서 성경 말씀을 처음으로 소리 내어 읽게 되자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베냉 문자교실 모습

>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글을 가르칠 때 항상 성경을 사용하고 성경 속 이야기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 듣기만 했던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그만큼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습니다."
>
> - 베냉 문자교실 교사

##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말씀

서아프리카에서 불안한 치안과 어려운 생계 속에서 늘어나는 범죄는 머나먼 일이 아닌 주변 이웃의 일이 되었습니다.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들이 잘못을 깨닫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성서공회들은 지역 교도소의 수감자들과 이들을 관리하는 교도소 직원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직원



▲부룬디 교도소에 전해진 성경

들은 성경을 읽으며 수감자들을 대하는 방식을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공부를 한 죄수들의 행동이 좋아졌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죄수들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성경공부에 참여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저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성경의 가격이 부담스러워 사지 못했는데, 이제는 성경이 더 큰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레오날드(Leonard) 교도소장/부룬디



▲보코하람의 습격을 받은 말리 마을

## 말씀이 주는 평안

부르키나파소 북부 지역 비구엘레 마을의 주민들은 과격 이슬람 무장 단체(보코하람)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뿐 아니라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으로 내려오는 보코하람의 영향력으로 주위 여러 나라 주민들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들은 더욱 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들이 두려움을 이길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무장단체에 쫓기는 중에 남편과 동생을 잃었습니다. 그날 입고 있던 옷을 제외한 모든 것이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 디알로(Diallo)/부르키나파소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저는 트라우마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 기반 회복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영혼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게 평안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 후시아우(Houssihoué)/니제르



▲홍수로 이주 중인 니제르 사람들



▲홍수 피해 마을에 성경을 보급하는 모습

## 다시 일어서게 하는 위로

반복되는 가뭄, 홍수, 태풍은 서아프리카 나라들이 겪는 식량부족의 주된 원인입니다. 자연재해를 감당할 제반 시설이 부족한 나라들일수록 피해가 크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홍수로 저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고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반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저희 가족은 모든 소유물들이 물에 잠겼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의 생명을 구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 성경 기반 회복 프로그램 참여자/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금도 연이어 반복되는 자연재해를 경험한 서아프리카 사람들은 절망에 빠진 채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전해진 성경은 위로를 전하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거리에는 고통과 굶주림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저도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었지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희의 아픔은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니제르 사람들의 영적 필요가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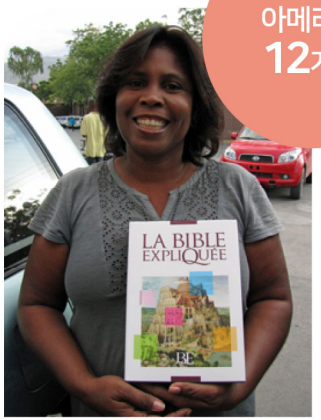
- 야에 하마(Yaye Hama)/니제르성서공회 총무

10만 원을 헌금하시면 10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서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에게 보내는 컨테이너에 성경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 080-374-3061(수신자 부담)

#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 48개 나라에 840,925부의 성경을 보냈습니다!

• **굵은 글씨** – 지금까지 성경이 발송된 나라 (2022.10.31 기준)




## 아메리카 12개국

**과테말라, 니카라과, 멕시코, 볼리비아, 수리남, 아이티, 온두라스,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 아프리카 25개국

**가나, 가봉, 기니 비사우, 남수단, 니제르,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베냉, 세네갈, 세이셸, 에리트레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 아시아 · 태평양 7개국

**라오스, 몽골, 미얀마, 인도, 태국, 파키스탄, 홍콩**

## 유럽 · 중동 4개국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터키), 포르투갈**

# 수리남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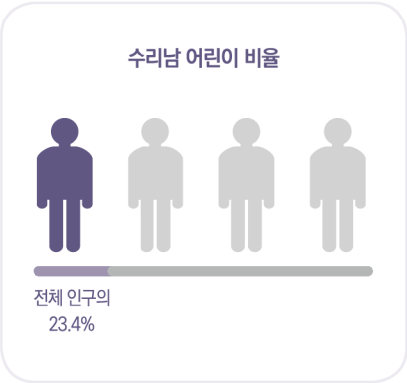


올 해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수리남은 국가적으로 마약이 널리 퍼져 있는 모습과 이로 인한 범죄들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리남은 어떤 국가일까요?

수리남은 남아메리카 대륙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한반도의 3/4, 인구는 61만 명 정도로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열대 우림과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천연자원에 의지한 경제 운영과 부패한 권력자들로 많은 국민들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수리남 빈곤율 47%),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범죄 문제들도 있습니다.

## 상처받은 어린이들

특별히 수리남에는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들이 학대받고, 방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리남의 14세 이하 인구는 전체 인구의 23.4% 정도로 많은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학대와 방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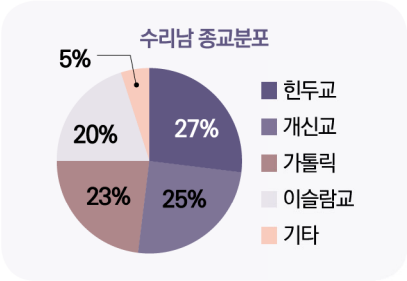



어린이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도시와 시골 지역 간의 교육 격차가 심하고,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또 학교에 다니다가도 중도에 그만두는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어린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독성 비로를 사용하는 농업이나 수은에 노출되는 금광에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큰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는 어린이들은 정부와 NGO가 제공하는 지원을 받고 있지만, 어린이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삶의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

다른 한 가지 어려움은 수리남이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국가라는 데 있습니다. 수리남의 종교는 힌두교(27%), 개신교(25%), 가톨릭(23%), 이슬람교(20%), 기타(5%)로 다양한 종교들이 비슷한 비율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네덜란드와 영국 식민 지배의 영향과 더불어 당시 이주해 온 동인도계 인들의 영향으로,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종교 분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교성이 강한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 전체가 힌두교나 이슬람교를 믿는 경우도 있고 이런 마을에는 마을 한 가운데 종교 석상들이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수리남의 많은 마을들은 시골로 갈수록 흩어져 있고, 그곳에서는 성경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화된 마을들이 시골 지역 곳곳에 있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게 된 이후로도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 없이 신앙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정령 숭배나 토속 종교, 조상숭배가 결합되어 성경을 바탕으로 한 바른 신앙을 세우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꼭 필요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읽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 기증받은 성경을 읽고 있는 어린이



▲ 사라마칸(Saramaccan) 마을에 보급된 성경을 받은 마을 여성들

## 어린이 성경 보급 & 주일학교

수리남성서공회는 공립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11세~13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앞으로 여러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하며 성경을 나눠 줍니다. 또한 지역 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도 성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주일학교에서 또래 아이들과 함께 찬양과 율동을 배우고, 말씀을 배웁니다.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접하며 성경 이야기가 마음에 심겨진다면 이후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귀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 오지 지역 성경 보급

또한 수리남성서공회는 주기적으로 수리남 외딴 마을과 시골 지역을 방문해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위험이 있거나 자연재해가 심각한 오지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기에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지 지역에서 신앙을 이어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전도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자, 스스로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큰 도움입니다.

*수리남에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보급되어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후원을 통해 어린이 그림 성경이 수리남에 보내졌습니다. 수리남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복음을 알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여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이란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시위에 참여한 이란 사람들의 모습

지난 9월 16일, 이슬람 율법에 따라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다가 의문사 한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가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을 주축으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전국적으로 "여성의 삶, 자유"를 외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시위 속 강력한 탄압과 충돌로 인해 최소 403명이 사망하고 1만 5천명 이상이 체포되었습니다. 시위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슬람 공화국 종식을 요구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사람들은 분노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란은 오픈도어선교회에서 발표한 기독교 박해 순위 9위로 강력한 이슬람 국가 체제를 유지하며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나라입니다. 이란 기독교인들은 지하 교회에 숨어 예배를 드리거나 주변 국가로 피신하여 힘겹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핍박 가운데서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란 사람들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란 디아스포라성서공회는 이러한 이란 기독교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시위로 고통 속에 있는 이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전파되어 참 자유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란 기독교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란 디아스포라성서공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터민 대학생들도 말씀을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 –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번역에 감사하며 –



박인희(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강사)

2021년 11월, 대한성서공회에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출판되었다는 소식에 무척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성경이 꼭 필요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사 년 전부터 이화여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 공부를 하는 새터민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과의 만남은 처음에는 영어 성경 공부로 시작되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이화여대에 들어와 남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던 이 친구들에게 당시 가장 큰 어려움은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었습니다. 남한 친구들도 쉽지 않은 영어 수업이 새터민 친구들에게 힘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섬기고 있는 이화여대 대학교회에서 새터민 친구들과 영어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작은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 친구들에게 때로 영어 성경보다 우리말 성경이 더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의 성경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와 문장을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개역 성경이 익숙한 저와 같은 신앙인들에게는 한문 투가 적당히 섞인 우리 옛글 성경이 왠지 정겹습니다. 성경의 고어적인 표현들은 어릴 적 고향 교회의 어르신들을 떠오르게도 하고, 옛 신앙의 선조들에 대한 아련한 향수마저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새터민 친구들에게는 이런 옛글 성경들이 오히려 잘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같은 한국말인데도 성경책은 어려워요."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문화적 차이나, 또는 고대세계에 관한 지식이나 유대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러려니 짐작했는데, 정작 친구들의 문제는 성경의 언어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것은 남한의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 이상 옛 성경 역본들이 정답게 느껴질 수 없었고, 자칫 고루하거나 심지어 고압적으로 느껴지는 어투들은 오히려 성경을 멀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던 때,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바로 제가 찾던 성경이었습니다. 특히 존칭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보다 본래의 예수님의 모습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새터민 친구들은 물론, 제 강의를 들었던 외국 유학생들에게도 이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한 중국 학생은 서양 역사를 공부하다가 혼자 성경을 읽고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된 친구였는데 이 책을 받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유난히 어학 실력이 좋았고, 신앙심도 깊었지만, 이 친구도 한국말 성경책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시편은 우리 옛말의 운율과 가락을 모르고서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워 한국말로 된 성경은 거의 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말로 된 좋은 성경을 선물하고 싶었던 차에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참 좋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지난여름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스코틀랜드로 유학을 가면서 이 성경을 소중히 챙겨 갔습니다.





▲ 이화여대 대학교회의 새터민 성경 공부 모임

처음에는 영어 성경 공부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우리 새터민 친구들은 지금은 저 없이도 자체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모여서 성경을 읽는 모임을 벌써 이 년 가까이 이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도, 못 만나는 슬픔도, 한국 사회에 적응하느라 지친 마음도 견디고, 학업의 고달픔도 저녁에 조용히 모여 성경을 읽으며 이겨냅니다. 그러던 가운데 몇몇 학생들은 벌써 졸업도 했고, 원하던 회사에 취업도 했습니다.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며 대학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새터민 친구들의 아름다운 삶을 보며, 저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번 중간고사 기간에는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디지털 링크로 편리하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아무 때나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새터민 친구들에게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이 좋은 동반자가 됨에 감사드립니다.

#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전해진 성서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성서공회는 한국교회에 성경을 긴급히 요청해왔고,
3월부터 시작된 후원 요청에 많은 한국교회와 후원회원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 전쟁이 앗아간 평범한 일상

성인 남성은 군대에 징집되어 우크라이나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폴란드에 있는 난민들은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들입니다. 본국에 남겨진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슬픔과 걱정 속에 있습니다.



"피난 버스를 타고 폴란드까지 오는 동안 끊임없이 눈물이 났어요. 남편의 생사를 확인하는 연락도 자주 끊기곤 했죠. 머무를 곳도 없이 막연했던 그때, 교회에서 제공하는 쉼터를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저희 아이들은 폴란드어 수업도 받고 진학 준비도 하고 있어요.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걱정이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니까요."

-두 자녀를 둔 난민 여성

## 폴란드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성경을 보급하다

폴란드성서공회는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한국교회에서 후원한 요한복음을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1 플로츠크 지역 교회 성서 보급



2 플로츠크 지역 복지센터 성서 보급



3 정부 임대 난민 쉼터 성서 보급



## 성경은 희망을 줍니다!



아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남편과 떨어져 아이들과 폴란드로 피난 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 계획하시는 일과 이 땅에 저희를 있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은 저희에게 희망을 줍니다. 눈물과 고통, 죽음이 일어나지 않는 때가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희망으로 서로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 말씀이 주는 소망을 발견하다



레셰크는 100여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사역하는 봉사자입니다. 전쟁 전에는 노숙자와 장애인들을 도왔던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난민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난민들에게 전해 줄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을 보자 레셰크는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이 성경은 많은 난민들에게 전해져 새로운 소망을 줄 것입니다."

후원감사 영상 바로 보기

후원회원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주세요!

*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성서 보급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증하는 〈라오어 성경〉 앞 기증 예식 참석자들

#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냅니다!

**세상의소금 염산교회** – 라오스 〈라오어 성경〉 1,565부 기증

2022년 9월 15일, 세상의소금 염산교회(김종익 목사)의 후원으로 라오스에 라오어 성경 1,565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세상의소금 염산교회 김종익 목사는 "저희 교회가 코로나 상황 속에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고, 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라오스에 성경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준비한 선물을 받아주기를 청한 것처럼 '간곡히 청하고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나누는 마음' 갖기를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먼저 받았던 은혜를 전하는 일에 작게나마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라며 기쁨을 전했습니다.

라오스성서공회 파이라냐 사하싸와스 조이 총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라오스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늘어감에 따라 성경의 수요가 급증했음을 이야기하며 성경을 후원해 준 세상의소금 염산교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 받는 라오스는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하지만 외국인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현지인 지도자들도 매우 부족하고, 오지 지역으로 갈수록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오스에 전달되는 〈라오어 성경〉 1,565부는 라오스 오지 지역 교회들과 가난한 기독교인들에게 전달되어 이들이 신앙을 지키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글을 모르는 현지인들에게 라오어를 가르치고,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데도 사용되어 복음을 전파할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성경기증(왼쪽부터 창조교회 홍기영 목사, 본 공회 권의현 사장)

# **주님의 말씀**이 **힘**을 얻기 원합니다!

**창조교회** – 볼리비아 〈스페인어 성경〉 6,150부 기증

2022년 9월 30일, 창조교회(홍기영 목사)의 후원으로 볼리비아에 스페인어 성경 6,15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창조교회 홍기영 목사는 "주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을 때에 그 사회의 잘못된 부분, 어지러웠던 영적 질서가 바로잡히는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볼리비아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펼쳐지고 정의, 평화, 창조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며 바람을 전했습니다.

본 공회 권의현 사장은 "볼리비아에 성경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홍기영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선교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내는 스페인어 성경이 볼리비아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볼리비아는 남미에서도 빈국에 속하며 인구의 상당수가 빈곤선 아래에 속해 있습니다. 또 볼리비아는 여느 중남미 국가들과 같이 가톨릭이 널리 자리 잡고 있지만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소수입니다. 이 가운데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성경이 부족해 지역 목회자들은 성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전달되는 〈스페인어 성경〉 6,150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경을 구하기 어려웠던 볼리비아 기독교인들과 폭력을 경험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시골 지역에도 보급되어 복음 전파를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볼리비아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기증 예식에 참석한 남전도회전국연합회 임원들

# 성경을 후원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남전도회전국연합회**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어 성경〉 기증

2022년 10월 5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남전도회전국연합회(회장 이규배 장로)에서 우크라이나 성경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며 성경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봉일교회 손경호 목사는 "거룩한 꿈과 비전은 선구자와 동역자가 굳게 잡은 손을 통해 멋지게 성취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바울이나 누가와 같이, 또는 그들을 후원했던 데오빌로와 같이 되어 세계 선교와 복음 선교에 앞장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라며 기대를 밝혔습니다.

본 공회 호재민 총무는 "우크라이나에 후원하시는 성경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참혹한 전쟁터에서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다잡고 일어서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며 감사와 바람을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공포와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위로와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의 후원으로 우크라이나에 3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 35만 3천 6백부와 〈우크라이나어 성경〉 2만 8천부가 발송되었습니다. 현재는 한국교회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에 4차로 발송할 성경을 제작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해진 성경을 통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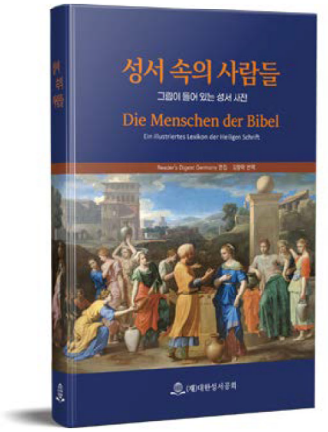


# 『성서 속의 사람들』을 발간하다

본 공회는 『성서 속의 물건들』(2011)과 『성서 속의 식물들』(2015), 『성서 속의 동물들』(2018)에 이어, 2022년 7월 30일에 『성서 속의 사람들』을 번역하여 발간하였다.

이 책은 성서 속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 '성령' 뿐만 아니라 천사들, '사탄', 괴물들도 소개한다. 전체 항목은 469개로, '가나안'부터 '히스기야'까지 가나다 순으로 제시되며, 성서에 충실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각 항목에서는 해당 인물이 성서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밝히고 그 인물에 관한 성서의 기록을 요약하여 설명하며 그 인물이 후세대에 끼친 영향도 서술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대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설명과 신학적인 풀이도 덧붙이고 있다. 특히 설명과 함께 나오는 그림들과 지도들은 현장감과 생동감을 더한다. 렘브란트, 프라 안젤리코와 같이, 미술사에서 중요한 예술가들의 그림을 선정하여 인물과 관련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성서에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이끈다. 또한 설교를 준비하거나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에도 활용하기 좋은 자료가 된다.






▲ 본문 미리보기(46~47쪽)

**전국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
**(문의: 대한성서공회 반포부 02-2103-8847)**

# 2022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한 해 동안 회원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연말 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및 발급 방법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www.bskorea.or.kr 접속

성경후원 → 나의 후원 → 기부금 영수증 발급 클릭

마이페이지 – 이름, 휴대전화번호(인증번호 받기),
인증번호를 차례대로 입력 후 **로그인** 클릭

좌측 메뉴 **기부금영수증 신청** 클릭
개인정보 확인 후 **저장하기** 클릭
*정확한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를 꼭 확인해주세요!

신청 완료
(개인정보를 저장하시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 완료 후, 다음날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후 발급이 완료되면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마이페이지 재접속 후 메뉴 기부금영수증 〉 **조회하기** 클릭 후 출력 가능힙니다.

**오프라인 발급**을 희망하시거나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080-374-3061 (수신자 부담)**

### 꼭 읽어주세요!

- 2022년도 기부금영수증은 2023년 1월 5일 이후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이전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 오프라인으로 기발급 받으신 경우 온라인으로 중복 발급되지 않습니다.
- 소득 공제는 '종교단체 기부금(코드41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매월 전하는 성경,
#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족, 지인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기쁨을
선물해주세요!



##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1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기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02 전화로 가입하기

후원자 전용 전화 080-374-3061(수신자 부담)

### 03 직접 송금하기

후원계좌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재)대한성서공회)

| | |
|---|---|
| 국민은행 070-01-0340-570 | 신한은행 140-009-909678 |
| 우리은행 1005-702-311166 | 수협은행 033-01-085327 |
| 농협은행 355-0025-0990-53 | 우 체 국 011916-01-000076 |
|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디모데후서 3:16~17